

말씀의 샘

성령님을 사모하라 <사도행전 2:1~4/ 2:37~42>

갈수록 이 시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의 유무를 따지며, 경제적 가치를 생각하며, 물질적으로 가진 사람이나 아니냐 부터 판단하며,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를 빠르게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는 계산이 굉장히 빨라졌고 보이지 않는 것은 쉽게 무시하고 버리는 경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 만능 시대. 그래서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영적세계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 힘든 악한 시대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믿는다는 이름을 자들 중에서도 경건의 중요성과 영성의 중요성, 믿음과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경시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 보이지 않는 신앙을 선택하기보다 보이는 급한 현실을 선택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해도 여전히 가치관이 세상적인 사람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신 성경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가치관 테스트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평가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보고 선택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마 19: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재산, 가족보다도 “주님의 이름”, “영생, 복음”등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함을 강하게 직설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이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며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분이며 사모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분인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며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흠뻑어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흠보다 생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에스겔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생기가 들어가니 마른뼈가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생명의 영이신 것입니다. 사람 속에서도 그 생명, 그 영이 떠나면 눈,코,입은 그대로인데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리고 급기야 불품없고 흉측한 부패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롬 8: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예수님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도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귀한 분이십니까? 신기하게도 우물증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도 약을 먹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도 소용이 없었는데, 성령, 생명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가 기쁨의 사람이 되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간증을 우린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합니다. 파라(곁에) + 클레토스(칼레오: 부르다, 간청하다, 위로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까지 가는 길에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절대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분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게 아니고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고전 12: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어찌해서 나를 위한 사건입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사람도 아니고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의 죽음이 어찌해서 나를 대신한 죽음으로 믿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영이십니다. 수백년전부터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에게도 성령이 감동하셨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순간에도 성령이 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점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

으셨고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도 곧 성령이셨습니다.

고전 2: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곧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잘 모시며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깨닫고, 사모하는 자가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합니다.

잠언 2:4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 8:17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령님을 진짜 만나려면 은을 구하듯이, 보배를 찾듯이,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귀한 분을 귀하게 구해야 합니다. 귀하게 구해서 얻어야 귀한 줄로 알고 귀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만났다고 마친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지만 모두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구하되 돈을 주면서 구하려 했습니다.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기는커녕 저주가 임할 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5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백이십 명이나 되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이나 보았는데 왜 고작 120명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했을까요?

고전 15: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많은 성경학자들은 500명에서 일시적으로 보인 사건을 예수님이 지상명령과 함께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신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럼, 왜 성령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도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성령을 받는 일에 380명이나 이탈했을까요? 마가다락방까지는 먼 거리도 아닌데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380명도 물론 원했겠지만, 그보다 마가다락방에 오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급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이고, 생업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도 말렸을 것이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일이 더 크다고 생각한 120명은 성령을 열흘간 전심으로 구했고 또 충만하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 성령을 귀한 분으로 여기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동행하며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생명으로 늘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2016. 5월 15일 주일 예배 이 강화 목사

2016. 5. 22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시편 139:7~16

말 씬 선 포 ----- 이 기봉 목사

"하나님의 주권"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